

예선부터 좁은 문... 자천타천 6명 물밑 경쟁

■ 구청장 입지자

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표명한 후보는 없지만, 현재 6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.

이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유태명 현 동구청장을 비롯한 5명이 민주당 후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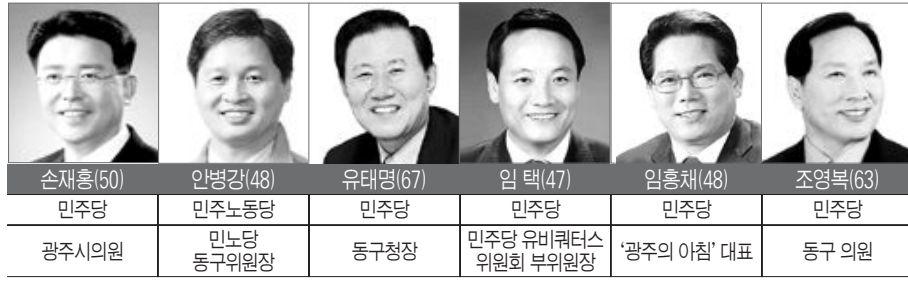
따라서 동구청장 선거는 '본선'에 앞서 민주당 공천권을 놓고 벌이는 '공천 경쟁'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다는 게 지역 정치가의 분석이다.

하지만, 이들은 공식 출마 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은 채 물밑 경쟁만 펼치고 있다.

먼저, 유태명 청장은 "아직 출마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다"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, 지역정치에서는 그의 '3선 도전'을 긍정사실화하고 있다. '현직 프리미엄'을 안은 유 청장은 민선 3·4기 청장으로 동구 행정을 이끌어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놓은 점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1천2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축제 가운데 동구 총장로 축제를 짧은 시간 내에 문화체육관광축제로 선정시키는 등 도심 공동화로 꺼져가는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. 여기에 노인복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매

■ 광주 동구청장 입지자



(가나다 순)

민주당 '공천경쟁'이 본선... 신경전 치열 '현역 프리미엄'에 '짧은 일꾼론' 맞서

니페스토(선거 공약) 이행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.

이에 맞서 광주시의회 2선 의원인 손재홍 광주시의원이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출마의지를 다지고 있다. 손 의원은 의정활동기간 매년 한국지방자치학회, 시민사회단체 등이 선정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.

손 의원은 "도심 공동화로 인해 동구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내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"면서 위기에 빠진 동구에 회

망을 줄 수 있는 추진력 있는 '짧은 후보'임을 강조했다.

동구의회 유일한 3선 의원인 조영복 의원도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. 동구의회 의장을 두 차례 역임한 조 의원은 전국 자치구의회협의회 대표회장을 맡는 등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며 12년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.

조 의원은 행정구역 간 경제조정 등을 통해 인구를 15만 명 선으로 늘리고, 재개발 미추진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

환하는 한편 총장로 축제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.

임택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회 부위원장도 구청장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. 임 부위원장은 3·4대 동구의원과 참여자치 21 지방의회 포럼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. 양형일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임 부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, 유태명 청장에게 석패하기도 했다. 임 부의장은 이 같은 풀뿌리 자치행정과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구발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것을 자신하고 있다.

임흥재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도 동구의 새로운 변화와 '명가 재건'을 앞세우며 이달 말 출마희망을 할 계획이다.

임 전 처장은 "짧은 패기와 열정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출마 권유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"며 역동적인 동구 건설을 강조했다.

민주당 이외에는 안병강 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.

안 위원장은 93년부터 17년간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을 이끌어왔고, 보건의료노조 광주·전남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환경 개선과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전·현 기초의원, 민주당직자들 '지역구 발판' 시의원 도약 꿈 꾀

■ 시의원 입지자

동구 광역의원 선거도 치열할 전망이다. 민주당에서만 2개의 선거구에서 9명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.

양혜령 현 광주시의원(여·민주당·동구 1)이 보궐선거로 입문한 초선의원인데다 손재홍 시의원이 일제강점기 동구청장 선거에 뛰어 들면서 어느 선거구보다 물밑경쟁이 치열하다. 동구의회 초선·재선 기초의원들과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들이 그동안 다진 지역구를 발판 삼아 시의원으로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.

현재 1 선거구(충장동, 동명동, 계림 1·2동, 산수 1·2동)는 양혜령 시의원이 지난 2007년 보궐선거를 통해 입문해 표밭을 일군 곳이다. 양 시의원은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란이 됐던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에 큰 기여를 했고, 문화수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 1년에 넘게 끌어온 별관 갈등을 마무리 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양 시의원은 23년째 계림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지역 텃밭을 일궈온 탓에 이번 지방선거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.

양 시의원에 맞서 강현주·임병준·조인석 등 3명의 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과 김

■ 동구 광역의원 입지자

선거구	이름	경력
1	강현주(54)	광주시 새마을금고 사무국장
	김영우(42)	5대 동구의회 의원
	양혜령(48)	현 광주시의원 의원
2	임병준(52)	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
	조인석(63)	"
	김형기(54)	4·5대 동구의회의원
	김영호(45)	글로벌코리아(주) 대표이사
	나광석(49)	한국원예치료 복지협회 광주협회장
전인수(62)	전 광주시의원 의원	
	전인수(61)	5대 동구의회 의원

영우 현 동구의회 의원이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. 김영우 구의원은 16년 동안의 정당생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, 지난 총선 당시 박주선 의원 캠프에서 선거 사무장을 맡아 전국 최다득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.

2 선거구(지산 1·2동, 서남동, 학동, 학운동, 지원 1·2동)에서는 4·5대 동구의회 의원을 한 김형기 구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재선의원인 김 구의원은 8년 의정기간활동 장애인과 노인 복지 향상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또 신이섭 전 광주시의회 의원과 전인수 동구의회 의원, 김영호 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·나광석씨 등도 시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. /최권일기자 cki@r

■ 쟁점 & 변수

이번 6·2 동구청장 선거 관련 포인트는 민주당 후보 경선과 유태명 현 동구청장의 3선 여부다.

공천권에 영향력을 가진 민주당 동구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의 입김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때문에 각 입지자들은 경쟁적으로 박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경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. 유 청장은 박 최고위원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신뢰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, 손재홍 광주시의원과 조영복 동구의원은 박 최고위원과의 밀접함을 내세우고 있다.

민주당이 어려울 때 끝까지 사수한데다 지난 총선에서 박주선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전국 최다 득표 당선에 기여한 점을 들고 있다. 아울러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어떤 경선제도가 도입될지에도 각 후보진영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우선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배심원제가 이번 구청장 공천에 적용될지 여부다.

- ① 박주선 위원장 영향력
- ② 시민배심원 도입 여부
- ③ 유태명 청장 3선 도전

일단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이 기득권이 있는 후보보다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고, 적극 추진할 움직임까지 보여 이번 공천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.

하지만,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위에 비해 열성적으로 활동을 벌여왔던 동구지역위 소속 당원을 소외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자치구청장 공천에 적용할 시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커 도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. 아울러 유태명 현 청장의 3선 성공 여부가

관심사다. 광주·전남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경우는 그동안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'3선'의 벽이 높는데다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인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'물갈이'를 외치며 유 청장을 집중 견제하고 있는 점도 '3선 성공'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하지만, 현 청장이 재선기간 나름대로 동구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주민 평가 인기도에서 여타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'3선 도전'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오는 6월 2일 치러질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,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지역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 <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 전경>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아이엘리시아

눈썹, 미용, 세안, 각종 피부 관리 행사 (300명 준비)

소모일부: 10만여, 20만여, 34만여, 50만여
대모일부: 10만여, 15만여, 150만여

0520-677-1199

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

8년째

080-080-8802